

# 檢 ‘尹 내란 사건’ 공수처에 이첩 착수... 수사 속도 낸다



김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총장 “절차상 논란 안돼” 전국 검사장에 서신... 내부 반발 진화 공수처, 조만간尹 2차 출석 요구 전망...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위한 재차 출석통보가 진행 될 가능성도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조만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자료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사건 기록이 넘어갈 정확한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자료만 공수처로 넘어가면 수사에는 속도가 붙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검찰이 2차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

를 했다는 점에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했기 때문에 출석을 통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도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적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기 소환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일단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사 15명, 수사관 36명 등 수사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할 방침이지만, 현재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대형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우려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수사권을 공수처로 이첩하자 반발 분위기도 감지됐다. 19일 심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

건을 이첩한 결정에 대해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는 등 내용 조정이 보이지 내부 진화에 나섰다. 심 총장은 서신에서 “중대한 사건이기에 적법절차와 관련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기 위해”이라고 이첩의 이유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서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에 적법절차와 관련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협의 과정에서도 대검은 전체 이첩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했으나, 공수처가 요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해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 끝에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며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檢 ‘계엄 체포조 의혹’ 경찰 강제 수사

### 우중수 경찰 국수본부장·경찰 관계자 3명 휴대폰 압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당시 체포조 인력 지원의혹이 있는 경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의혹과 관련해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을 소환했다.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우중수 경찰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수사라인에 있는 경찰 관계자 3명의 휴대전화도 가져갔다. 우 본부장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문자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라고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난 3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의 명단 등을 제공하고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앞서 강상문 영등포서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간부들을 포함해 당시 체포조로 현장에 나갔던 영등포서 형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도 이날 강 서장을 불러 계엄 이후 국수본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시 사항과 경찰력 운용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특수본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성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 장관과 조태열 외교, 박성재 법무, 김용현 국방, 이상민 행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조규홍 복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를 논의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특수본은 김 장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계엄 선포 방침을 들은 바 있었는지,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

## 尹, 탄핵심판 서류 또 거부... 헌재 ‘송달 간주’ 검토

### 첫 재판관 평의... “23일 입장 내놓겠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제차 수령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송달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송달과 관련한 입장을 오는 23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전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가 이날 모두 반송됐다. 반송사유는 수취거부로 지난 16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윤 대통령 관저에 오전 10시10분께 도착한 우편은 ‘경호처 수취거절’, 대통령실에 11시 40분께 도착한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우체국은 서류송달을 위해 이날 3차례 방문했으나 모두 접수를 거부당했다. 헌재는 이날 관련 서류를 대통령 관저에 당일특급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지난 17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준비

서류 역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모두 발송했으나 같은 유로 수령이 거부됐다. 헌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평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즉 ‘송달 간주’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달 간주는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평의 안건 내용은 기밀이며,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향후 진행 계획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국민 68% “尹 탄핵 심판 빨리 결정해야”

### NBS 조사... 73% “尹 파면될 것”·89% “국내 경제 상황 나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가급적 빨리 내야 한다는 의견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역조사(NBS)에 따르면 가장 180일이 소요되는 현재

탄핵 심판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0%였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 성향에 따라 탄핵 심판 기간에 대한 견해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2%,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95%가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8%로 더 많았다.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본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3%였다.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본 이는 21%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8%, 개혁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헌재 국가 경제에 대해 ‘나쁘다’고 본 사람이 89%로 ‘좋다’고 본 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8.5%다. /연합뉴스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록신문춘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